

기고

방화문 바로 알고 사용하기

문태운 무안소방서 화재안전센터 소방교



아침 일찍 출근길을 나설 때, 하얀 입김은 벌써 겨울이 다가왔음을 물씬 느끼게 해준다. 올해도 전년처럼 강추위와 많은 눈이 예상됨에 슬기로운 겨울나기로 평안한 계절이 되길 기원해 본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원하기 위해 가족들과 외식,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회식 등 많은 모임을 갖게 된다. 또한 이런 만남은 인파들이 많이 모이는 상가나 다중이용업소에서 이뤄진다. 그래서 잦은 연말 모임 전, 화재예방을 위해 관심을 두고 보았으면 하는 당부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혹시 업소를 들어가기 전 주변을 살펴본 적 있는가? 잠깐만 주위를 살펴보면 계단을 막고 있는 철로 된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왜? 비싼 돈을 들여 입구를 막고 있나 싶겠지만 이 문의 용도는 보통의 문의 용도뿐 아니라 '방화' 즉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문이라는 또 다른 용도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물어볼 게 있다. 이런 방화문은 평소엔 열려 있어야 할까? 닫아야 할까? 일단, 비상구는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이 비상구는 항상 개방돼야 한다고 있으니 손쉬운 대피를 위해 항상 열려두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이유는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생명을 치명적인 연기와 열기를 차단하는 화재의 방패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방화문이 열려 있다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소 방화문을 편하다는 이유로 열어두거나, 방화문 사이에 나무 등을 괴어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한다. 이는 인명을 방지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나 다름없다.

가족과 이웃, 동료의 생명을 위해 주변을 살펴보고 방화문이 열려있다면 닫길 바란다.

방화문을 닫아준다면 방화문 반드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것이다!



인생을 곱게 살고, 곱게 늙고, 곱게 죽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사람은 태어나 살아가면서 늙어가며 죽어가고 있다. 문제는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사람은 곱게 잘 살고 곱게 잘 늙어가고 곱게 잘 죽어야 한다. 사람이 남 보기 좋게 살고, 남 보기 좋게 늙어가고, 남 보기 좋게 죽자는 말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같이 살다가 짐승같이 죽는 사람도 있고,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는 사람도 있으며 성취처럼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사람이 태어나는 장소와 형편과 상황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모두 같다. 그렇다면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속언에 "인생은 나그네요 세상은 여관이라 그리하여 인생은 객(客)인생(過客人生)"이라고 한다.

그렇다. 인생은 세상이라는 곳을 지나가는 객(客)일 뿐이다. 머무르는 햇수는 평균 70년이나 많으면 100년인데 어찌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늙어버려 검은 머리가 백발(白髮)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을 뒤돌아보니 즐거운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았다는 고백이다. 그런데도 인생은 무엇을 잡으려고 생각 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는지 분명하지 않다.

레흐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아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 자신에게 던진 질문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무엇을 아는가?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성경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다.

인생만큼 허망하고 무의미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구에게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더 일찍이 깨닫고 산다면 삶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그 삶의 결과는 인간의 삶의 가치를 창조주께서 인정할 만 한 데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금수(禽獸)와 같이 본능대로 살다가 본능에 의하여 죽는 것이 아

니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은 만물 중에 영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생은 곱게(남 보기 좋게)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첫째 사람이 곱게 살아야 한다. 사람이 곱게 살려고 하면 양심을 속이지 말고 양심을 피하여 비양심으로 사는 생활을 청산하면 곱게 살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사는 것은 곱게 살 수가 없다.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곱게 사는 삶이 된다. 그것은 사랑의 삶이 되기 때문이다. 남에게 이익은 주지 못해도 손해는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은 사람이 곱게 늙는 것이다. 이는 얼굴에 흠이나 티가 없이 깨끗하게 늙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망령(妄靈)이나 치매에 걸려 헛소리하지 아니하고 추하게 살지 아니하는 노망(老妄)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본인의 마음대로 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는 기도해야 할 문제다. 고여 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신체가 굳어지고 늙는다. 그러므로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건강하게 늙는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곱게 죽자는 것이다. 세상 어느 사람도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은 원치 아니하였지만,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여 점점 상태가 나빠져서 연명치료까지 하면서 생을 보내는데 이는 살았다고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살아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삶의 질이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것이다.

죽음은 같은 죽음인데 곱게 죽지 못하고 험하게 죽는 것은 자신은 물론이지만, 가족들에게도 매우 부담을 주는 험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남에게 도움 주고 곱게 살면서, 건강에 투자하여 잘 먹고 운동하여 곱게 늙어가고,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곱게 죽어야 한다.

칼럼

기고

기고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honam@naver.com](mailto:ihonam@naver.com)

몸캠피싱(Sextortion)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안기오 장흥경찰서 경무계장



최근 신체적 특징부위 영상 및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몸캠피싱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여타 피싱피해는 예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점차 감소되는 분위기인 반면 몸캠피싱 피해사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연령도 나이를 불문하여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과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몸캠피싱(Sextortion)은 2000년대 초반 온라인 화상채팅과 함께 등장한 것으로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하여 음란한 장면을 녹화 또는 사진 촬영한 다음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연락처를 해킹 영상 또는 사진 유포를 협박하며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를 예방을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문자나 웹은 절대 열거나 다운받으면 안되며, 익명성 보장이 된다는 랜덤토크팅 등을 가장한 몸캠 피싱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캠피싱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늘어 나고 있으며 장흥경찰서에도 월 2~3건의 피해신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몸캠피싱 피해를 당해 금품요구 협박을 받으면 1차, 2차에 끝나지 않고 계속하여 요구하는 만큼 그에 응하지 않고 즉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국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니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